



## I. 이달의 소식

1. 정기모임 안내 1쪽
2. 지부소식(기도제목, 강연내역) 38쪽

## II. 특집

1. 교과서와 기원문제(2) 2쪽

## III. 내용

1. 정재훈 칼럼(29)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들2 4쪽
2. 빙하기 탐구(5) Frozen in Time(4) -강기태역 8쪽
3. 창조기사(52) 좋은소식 -이종현역 15쪽
4. 성경여행(97) 에스더 왕비 이야기 -이종현역 19쪽
5. 창조과학단상(2) 진화적 창조론에 대한 단상 -정재훈 22쪽

## 인사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거슬러서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조상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우리 존재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설계의 주체가 창조주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이야기 하는 과학자들이 있지만, 법칙이 있으려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체의 신비, 만물에 깃든 창조의 증거들, 수많은 지층과 화석은 성경이 진리이며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위대한 설계자 창조주입니다! 창조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신앙)이 강력한 것은 창조가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함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알리고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어린이 사역팀장 같은주 -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대구지부 기본과정 공개강좌”가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6시 30분부터 간식)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64(4층)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 실험으로 확증된 생물속생설

노휘성 글(과학교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오늘날 우리는 장기간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 제품들에 익숙하다. 통조림의 보편화는 멸균처리만 잘 하면 음식이 들어있는 용기 내에서 미생물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과학자들조차도 생물이 흙이나 부패한 음식 같은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고 믿곤 했다.

‘생물이 과연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썩은 고기나 죽은 뱀, 고기 국물 등을 이용한 일련의 실험들이 16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래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과학 또는 생물 교과서를 통해 ‘생명의 진화’라는 대단원 안에서 ‘자연 발생설의 도전’이나 ‘생명의 발생에 대한 논쟁’과 같은 소제목으로 배우고 있다.

200년 간의 논쟁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을까? 우선, 이탈리아의 기생충학자이자 의사였던 레디는 여러 차례 실험과 특히, 1668년에 수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한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얻었다. 입구를 천으로 막지 않은 병에서만 구더기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벌레들이 고깃덩이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의 발생이었다. 그 시절 현미경을 개발(1675)한 네덜란드의 레벤후크조차 미생물이 자연 발생한다고 믿을 정도였다. 1745년에는 자연발생설을 지지하는 니이덜과 뷔퐁의 실험이, 그 다음에는 이를 반박하는 스팔란차니의 실험이, 그 후로도 1800년대 중반까지 양측의 논쟁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팽팽하게 이어졌다.

결국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실험을 한 사람에게 대상을 걸게 되었는데,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부패의 원인임을 입증하였고, 현미경으로도 확인하였다. 이로써, 아무리 작은 생물조차도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결론짓게 되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확고한 사실을 왜 “생물의 진화”라는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대단원의 맨 처음에 생물이 자연 발생되지 않음을 짧게 다루고 나서, 나머지 한 단원 전체에 걸쳐 생물의 자연발생을 전제한 진화론을 공부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월드(George Wald)의 말을 들어보자.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가능성 밖에 없다. 창조론과 자연발생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연발생설은 이미 백여 년 전에(파스퇴르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우리에게선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이유, 특히 철학적인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최초의 생물, 즉 최초의 단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주를 인정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면서까지 자연발생을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진화론이다. 유럽은 100년 넘게, 한국은 반세기 넘게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왔다. 실험으로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무신론의 신념(철학적 이유) 때문에 처음 생명이 우연히 발생 되었다는 전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속생설은 인류 역사상 실험과 관찰을 통해 부정된 적이 없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게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나온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결론은 처음에도 당연히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생명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우리 자녀들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조**

## 29.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들2

###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29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들 2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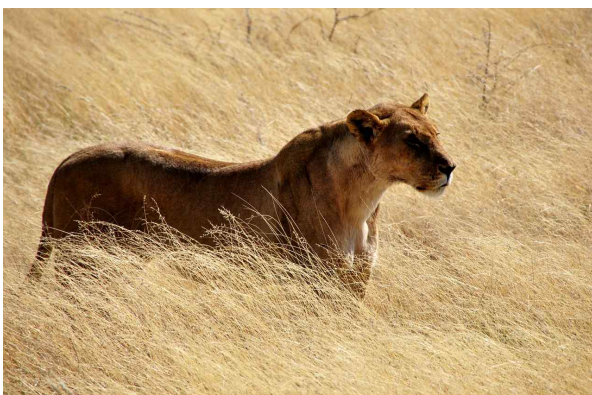


#### 진화의 증거 (3) 잔인한 창조

만약 신이 창조한 것이라면, 창조주는 왜 이렇게 잔인한 시스템의 세상을 창조했을까? 도킨스는 인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듯 보이는 피조계의 잔인함을 소개하며 하나님에 의한 설계, 창조를 부정한다. [379]

(인용문) 살아있는 곤충 안에 알을 낳아서, 자신의 유충이 곤충의 내장을 먹고 살도록 하는 맵시벌, 유충이 성장함에 따라 결국 곤충은 서서히 죽게 되는데, 설계자는 맵시벌의 한살이를 왜 이토록 잔인하게 설계한 것일까? [380]

사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새끼영양과, 쫓기는 새끼영양을 보면서도 달아나야만 하는 어미 영양들, 그리고 사냥이 잘 끝나기를 지켜보는 새끼 사자들, 과연 창조주는 누구의 편인가? 창조주는 왜 이런 잔인한 형태의 영양 섭취 과정을 만들었는가?



〈사냥하는 사자〉

배다른 형제들을 동지에서 밀어내는 어린 뼈꾸기, 노예 같은 일개미들의 일상 등 ‘잔인하고 불합리한 구조가 과연 인애하신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도킨스는 신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 진화되었음을 주장한다. [381] 과연 도킨스의 해석이 사실일까?

## ■설계의 증거

### 진화의 증거에 대한 반론들

진화와 창조에 관련된 글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읽다보면, 창조론자들은 왜 창조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진화를 부정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느냐는 댓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앞에서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증거물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에 의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적 해석을 부정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단 앞에서 소개된 진화론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19세기의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몸에 180개의 흔적기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쓸모가 없었던 흔적기관의 역할은 오늘날 거의 다 밝혀져 있다. 쓸모없었던 충수가 면역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꼬리뼈는 엉덩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 꼬리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꼬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리와 아래 근육을 연결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뼈가 없으면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 갑상선은 영아기와 유년기의 정상적 신체 발육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편도선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다. 180개라고 했던 흔적기관은 현재 진화론자들 스스로 단 4개의 흔적기관만이 있다고 수정했고, [471] 그 4개도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진화의 과정에서 쓸모가 없어진 기관이 아니라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 이것들의 기능도 곧 밝혀질 것이다. (벌써 밝혀져 있는지도 모른다.)

생물은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생김새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도 있다. 이상한 눈을 가진 넙치, 수영하는 작은 날개를 가진 펭귄,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카카포, 나는 이런 생물의 존재를 하나님의 유머로 본다. 이것들은 설계자의 실수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최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 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신분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 더 가지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먹기 위해 그리고 먹히지 않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는 동물들. ‘왜 저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잔악한 저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나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했다.



창조과학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통은 사람의 범죄로 시작되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고통이 왔으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육식은 창세기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들로 미루어 설계자가 처음 설계한 시스템은 약육강식의 잔인한 시스템이 아니었음을 추론해 본다. 형제들을 동지에서 밀어내는 뼈꾸기, 살아있는 곤충 안에 알을 낳아서 곤충을 죽이고 자신의 유충을 키우는 맵시벌, 도킨스는 이런 잔인한 구조가 ‘인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며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부정했지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악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으나 사람은 그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땅과 모든 생물은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늘 한 그루의 나무에만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숲 전체를 위해 일하신다. 그래서 숲에 속해있는 우리가 숲 전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도킨스가 『지상 최대의 쇼』에서 진화된 증거라고 했던 되돌이후두신경이 우회하는 이유나 요관에 걸쳐진 정관은 도킨스의 생각처럼 신체가 진화된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자궁에서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생물은 조립을 완성한 다음 전원을 공급하는 로봇이 아니기에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기관이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기관들이 배아 상태에서부터 계속 생물체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관도 발생 과정에 따라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되돌이후두신경의 우회나 요관에 걸쳐진 정관과 같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것은 설계자의 실수가 아니다.

되돌이후두신경이 먼 거리를 우회하고 정관이 요관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다. 어떤 사람은 정관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지도 모른다. 설사, 후두신경의 우회나 걸쳐진 정관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진화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사람이 진화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임을 알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구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의도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가령 반대론자들이 궁금해 하는 박테리아는 몇째 날 창조되었는지, 아담의 범죄 전에 하루살이의 죽음이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나도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 때문에 답답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음이 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미제는 미제일 뿐이지 미제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기원을 진화와 연결하는 것은 어리석다.

‘창조자’라는 명칭이 ‘창조’라는 작업을 강조한 별칭이라면 ‘설계자’는 창조자의 능력을 강조한 별칭이다. 설계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 없고, 세상은 확률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고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복잡성은 스스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설계자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서는 글의 특성상 ‘창조주’라는 이름 보다는 ‘설계자’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내 글에서의 설계자는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진화론에 대항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지적 설계 (Intelligent design) 운동’은 지적 원인이 존재하며, 지적 원인에 의해 설계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지적 설계운동은 최초의 검증 가능한 ‘목적론적 과학’이라 할 수 있다. [382]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템스키 (William Demsky)’는 ‘지적 설계운동이란 지적 원인의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프로그램이고, 다윈주의와 다윈주의의 자연주의적 유산에 대해 도전하는 지적운동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383]

1988년도에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29%가 이 세계에서 훌륭한 설계와 복잡성을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종교가 위안이 되기 때문이라는 10%의 응답을 넘는데, 종교가 심리적인 것에서 이성적 직관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다. [384]

다음 시간에는 설계론자들이 제시하는 설계된 증거를 살펴보자.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참조](#)

# Frozen in Time

## Chapter 4 A Mammoth Number of Mammoth Hypotheses(매머드에 관한 수많은 가설들)

출처:

<https://answersingenesis.org/extinct-animals/ice-age/a-mammoth-number-of-mammoth-hypotheses/>

털북숭이 매머드에 관한 미스테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그에 관한 아이디어이나 가설이 매우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러하다. 털북숭이 매머드와 관련된 미스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은 가설들을 이끌어 냈는데, 그 모든 가설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설들은 토착 신앙에서 천체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Ancient and native beliefs(고대의 토착 신앙)

중세시대의 지역 주민들은 털북숭이 매머드의 잔해가 선사 시대의 거인이라고 생각했다. <1> 지질학이 발전하기 전, 러시아의 유명한 한 지식인은 그 동물이 징기스칸이 이끄는 방대한 군사 작전 동안에 죽은 코끼리라고 주장했다. <2> 게다가 그 뼈들은 한니발의 군대가 스위스 알프스를 넘을 때 거기서 도망친 코끼리의 것이라는 웃기는 주장도 있다. <3>

시베리아의 많은 원주민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체를 보면 병이 나거나 죽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머드의 뼈와 시체를 두려워했다. <4> 원주민들은 그 거대한 짐승이 한때 지하에 살았고, 앞뒤로 터널을 뚫었다고 생각했다. <5> 그들은 강기슭을 따라 유해가 발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짐승이 공기를 맡으려고 지표면 가까이로 올라오거나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즉시 죽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약 1600년 경, 중국 황제 강희는 동물에 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서 그는 동물 시체가 지표면 아래에서 살았던 5톤 무게의 설치류 유해라는 시베리아 신앙을 지지했다. <6> 시체에서 나온 일부 고기가 “신선하다”는 것은 그 짐승이 여전히 지하에 살고 있으며 빛을 보자마자 곧 죽



었다는 그들의 신앙을 고무 시켰다. <7>

### Thoughts from early geologists (초기 지질학자들의 생각)

초기 지질학자들의 아이디어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 대부분은 동일과정설의 원리와 같은 현대적 해석으로 편향되지 않고도 증거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1600년대에 털북숭이 매머드 화석의 존재가 유럽에 알려졌다. <8> 매머드 상아 무역은 1700년대에 시작되었다. Agassiz, Cuvier, Buckland 및 그 시대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화석이, 시베리아가 한때 따뜻한 기후였음을 가리킨다고 믿었다. <9> Cuvier는 갑작스런 기후 악화로 털북숭이 매머드가 멸종했으며 지역적인 홍수 혹은 다른 사건에 의해 매장되었다고 생각했다. <10> 주기적인 격변적 침수와 멸종을 주장했던 Cuvier를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노아시대의 홍수가 매머드를 휩쓸어버린 많은 격변들 중 마지막 격변이라고 받아 들였다.

찰스 라이엘 (Charles Lyell)은 처음에는 매머드가 남부 시베리아에 살았으며 매장되기 전에 강을 따라 북부 시베리아로 흘러왔다고 믿었다. <11> 이 생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뼈들이 이동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12> 많은 뼈들이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13> 동일과정설의 아버지인 라이엘 (Lyell)은 기후가 약간 따뜻했어야 함을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매머드와 얼어붙은 시체를 자기의 신념인 점진적 멸종과 동물상의 대체라는 것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 <14>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Lyell의 설명을 더 좋아한다. <15>

헨리 하워드 (Henry Howorth) 경은 <16> 아마도 시베리아에서 털북숭이 매머드의 멸종에 대한 주장을 종합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인물일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특별히 시베리아에서의 털북숭이 매머드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는, 지구의 표면에만 영향을 미쳤을 노아시대의 알은 홍수와 같은 거대한 홍수가 전세계의 모든 땅을 휩쓸고 지나며 시베리아 매머드를 죽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전 세계 여러 문화의 홍수 설화를 지지했다. 그는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동일과정설은 매머드의 미스테리를 설명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하워드는 공룡이 운석 충돌로 죽었다고 믿는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격변주의자 (neo-catastrophist)로 간주될 것이다.

Howorth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그가 탐험가와 여행자들의 초기 관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Tolmachoff <17>는 알려진 시베리아 시체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Howorth가 수집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언급했다.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매머드를 동반한 다른 동물상과 묻혀있는 식물상의 광범위한 분포와 특성에 대한 Howorth의 설명은 놀

라울 정도로 최신의 정보로 여겨진다.

## Astral catastrophes and catastrophic crustal shifts

### (천체의 재앙과 격변적 지각 이동)

시베리아에 있는 털북숭이 매머드 시체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격렬한 불안을 불러 일으켜서 전지구적 격변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다. 하워드 (Howorth)는 최초의 격변론자로 여겨지지만 이 섹션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보다 더 현대적인 신념이다. 내가 아는 한 이 개인들 중 누구도 기독교인은 아니다.

임마누엘 벨리코브스키 (Immanuel Velikovsky)는 ‘충돌하는 세계’ (Worlds in Collision) <18>와 ‘지구의 대변동’ (Earths of Upheaval) <19>이라는 천문학적 또는 천체의 재앙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책은 수백만 권이 팔렸다. 하지만 Velikovsky 또는 그의 생각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는 정통과 과학자들을 상당히 당황시켰다. Charles Ginenthal <20>은 Velikovsky의 가설에 대한 현대적이고 최신의 변호를 제공한다.

Velikovsky에 따르면, 천체의 재앙은 지구에 대변동을 일으켰다. 시베리아에 있는 털북숭이 매머드의 멸종은 그의 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매머드의 미스테리, 빙하기 및 지구과학의 다른 많은 수수께끼들을 태양계 안에서 지구에 근접해서 움직이는 금성과 화성에 의한 대격변의 모형으로 설명했다. 그리고는 다소간, 천문학적으로 엉뚱하기는 하지만, 이 두 행성은 태양 주위의 안정된 궤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 3,500년 전에 천체의 재앙이 일어났었다고 상상했다. 그는 구약의 많은 기적을 믿었는데 거기에 천문학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Velikovsky는 과거를 설명 할 때 내재하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Velikovsky는 Howorth와 마찬가지로, 동일과정설의 지질학적 교리가 과거의 많은 미스테리를 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만 알래스카의 “불쾌한 물건 (muck)”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과장된 요소를 추가 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의 사지가 찢어지고 뿌리 뽑힌 나무들과 섞여 있게 할 수 있었을까? <21>

다른 사람들은 또한 알래스카의 불쾌한 물건에서 사지가 절단된 포유류와 함께 비틀리고 절단된 나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22> 알래스카의 불쾌한 물건이 식물과 동물의 유해와 혼합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안한 것처럼, 전혀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더 평범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책에서 논의할 것이다.

Velikovsky와 Ginenthal은 화성 혹은 금성이 지구를 근접하여 지나갈 때 지구의 자전축이 갑자기 수직으로 변했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빙하기를 끝내게 했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기후가 따뜻해지자 매머드가 이동하도록 유혹했다. 그들은 후에 약 3,500년 전에 축이 현재의 23.5도로 되돌아 와서, 급속한 냉각을 가져왔고, 매머드가 길을 가던 중에 빠른 냉각에 의해 결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몇 매머드들은 그들의 입에서 음식을 삼키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위에서 씹기 전에 죽었다. Velikovsky와 Ginenthal은 매머드의 멸종, 빙하기의 원인 및 최근의 다른 많은 수수께끼들을 이 지구 자전축의 이동으로 설명한다.

Velikovsky와 Ginenthal의 가설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치명적이다. 자전축이 지금보다 수직으로 이동했다면 그것은 갑작스런 온난화가 아니라 빙하기를 초래한다. 영구적인 봄이나 가을이 이상적인 것으로 들릴 것이므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북극의 봄과 가을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알래스카의 북쪽(North to Alaska)”이라는 노래에는 알래스카의 봄이 화씨 영하 40도(-40°F)라는 구절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구의 축이 수직 일 때, 영구적인 봄이나 가을은 눈과 얼음이 쌓이게 할 것이다. 눈과 얼음은 더 많은 햇빛을 공중으로 반사시켜 냉각 효과를 더한다. 냉각과 빙하기는 중위도 지역으로 서서히 퍼져 나갔다. 그들의 이론에 대해 더 나쁘게도, 눈과 얼음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저지대에 축적 될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이들 지역은 절대 빙하가 된 적이 없다. 이들 저지대가 매머드의 땅이라는 것이 Velikovsky의 가설에 첫 번째로 영감을 것이다. 천체의 재앙 이론은 실제로 그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가 될 것이다.

다른 유명한 지식인들과 작가들은 Velikovsky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윤색했다. 이반 샌더슨(Ivan Sanderson)〈23〉은 지축의 이동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이 맨틀 위에서 급격히 이동했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토요일 저녁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에 발표했다. 그는 이것이 전 지구적인 화산 활동과 냉각 및 털북숭이 매머드의 빠른 동결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Charles Hapgood〈24〉역시 Velikovsky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지구의 지각이 이동했다는 Sanderson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시베리아가 북쪽으로 이동했고 북아메리카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매머드를 동결시키고 빙하기가 끝나게 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구 지각의 마지막 변위로 인하여 야기된 극심한 대기의 교란과 화산의 냉각이 특이하게 시베리아 매머드를 죽게 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의 첫 번째 책은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서문을 써서 지지를 받았는데, 아인슈타인은 과거의 기후에 관한 많은 미스터리들을 주류 지질학자들이 잘 설명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나는 그와 같은 격변을 가정하는 Hapgood와 몇몇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

은 자기들의 데이터에 주의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시베리아 탐험가인 Baron Toll이 New Siberian Islands에서 90피트(27미터) 되는 높은 과일 나무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Hapgood<25>가 언급한 경우이다. 그 나무는 뿌리가 온전한 상태로, 그리고 씨앗, 녹색 잎, 잘 익은 과일이 여전히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상태로 영구 동토층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Hapgood는 Toll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Bassett Digby<26>의 간접 보고서를 사용했는데, Bassett Digby는 Toll이 New Siberian Islands 중 하나인 Bol'shoi Lyakhov Island에서 빙하기 동물들 사이에서 90피트 높이의 오리나무를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오리나무(*Alnus fruticosa*)는 뿌리와 씨앗이 손상되지 않았다. Hapgood은 분명히 사실을 과장했다.

### The quick freeze(급속 동결)

위의 많은 가설들에서, 매머드는 급속 동결된다. 이 가설은 여러 매머드들의 위 내용물이 절반만 소화된 상태로 발견되고, 몇몇 매머드의 사체가 부패하지 않았고, 많은 뼈와 엄니들이 상하지 않은 채로 발견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실제로 급속 동결 아이디어는 19세기 초반에 시작된 오래된 아이디어다. 그것은 아마 Baron Cuvier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시대에는 대중적이었던 것 같다.<27> 관찰된 내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안이다. 급속 동결 가설은 1960년 Birds Eye Frozen Foods Company에 의해 부각되었다. 소고기를 통과하는 열전도에 근거하여, Beresovka mammoth의 위 내용물의 보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50^{\circ}\text{F}$  ( $-100^{\circ}\text{C}$ ) 이하의 온도로 갑자기 급락해야 한다고 계산했다.<28> 급속 동결 아이디어의 지지자들은 그러한 격변적 냉각을 설명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흥미로운 가설에 대해 나중에 더 많이 언급할 것이다.

### Mainstream scientific hypotheses(주류 과학의 가설)

주류 과학자들은 실제 데이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동일과정설이라는 철학에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그들의 해석과 결론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다.

윌리엄 패란드(William Farrand)<29>는 시베리아에서의 털북숭이 매머드의 삶과 멸종에 관하여 많은 과학자들 입장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는 동물들이 추위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시베리아 매머드의 멸종에 있어서 기후가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그는 고대 시베리아가 오늘날과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다소 따뜻한 기후를 나

타내는 수수께끼 같은 데이터가 약간 있음을 인정한다. 그는 수백만 마리의 매머드가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다고 믿지 않으며, 그곳에서 살았던 동물들이 오늘날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으며 생활했다고 생각한다. 패란드(Farrand) <30>는 털북숭이 매머드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주변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동일과정설적 관점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

털북숭이 매머드가 시베리아의 현재의 혹독한 기온이나 심지어 빙하기의 더 추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시베리아의 여름을 지배하는 늪지대 식생은 “섭생이 좋은 큰 덩치의 매머드”에게는 부적절한 영양을 제공했을 것이다. 게다가 시베리아 여름은 영구 동토층을 녹여서 매머드가 늪에 빠지게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베리아에 수백만 마리의 매머드가 있었다는 것이 잘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일과정설은 한때 시베리아에 살았던 많은 식량이 필요한 수백만 마리의 매머드가 존재했었다는 것과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멸종되었다는 몇 가지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 참고문헌

1. Kurtén, B., How to deep-freeze a mammoth,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p. 50, 1986.
2. Howorth, H. H., The mammoths in Siberia, Geological Magazine 7:550, 1880.
3. Tolmachoff, I. P., The carcasses of the mammoth and rhinoceros found in the frozen ground of Siberia,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23:viii, 1929.
4. Howorth, H. H., The Mammoth and the flood – An attempt to confront the theory of uniformity with the facts of recent geology, Sampson Low, Marston, Searle, & Rivington, London, p. 83, 1887. Reproduced by The Sourcebook Project, Glen Arm, Maryland.
5. Ibid., p. 73 - 74.
6. Kiger, P. J., Great mammoth discoveries, Discovery Channel online, 2000.
7. Dillow, J. C., The waters above: Earth's pre-Flood vapor canopy, Moody Press, Chicago, IL, p. 323, 1981.
8. Howorth, The Mammoth and the flood, p. 48.
9. Grayson, D. K., Nineteenth-century explanations of Pleistocene extinctions: A review; in: Quaternary extinctions: A prehistoric revolution, P. S. Martin and R. G. Klein (Eds.),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scon, AZ, p. 11 - 16, 1984.
10. Ibid., p. 9. Berger, W. H., On the extinction of the mammoth: Science and myth; in: Controversies in modern geology – Evolution of geological theories in sedimentology, earth



- history, and tectonics, D.W. Müller, J.A. McKenzie, and H. Weissert (Eds.), Academic Press, New York, p. 116, 1991.
11. Howorth, The Mammoth and the flood, p. 60.
  12. Tolmachoff, Carcasses, p. ix.
  13. Howorth, The mammoths in Siberia, p. 551.
  14. Grayson, Explanations of Pleistocene extinctions, p. 16.
  15. Hopkins, D.M., J.V. Matthews Jr., C.E. Schweger, and S.B. Young (Eds.), Paleoecology of Beringia,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16. Howorth, H.H., The Mammoth and the flood – An attempt to confront the theory of uniformity with the facts of recent geology, Sampson Low, Marston, Searle, & Rivington, London, 1887. Reproduced by The Sourcebook Project, Glen Arm, Maryland.
  17. Tolmachoff, Carcasses, p. 11 - 74.
  18. Velikovsky, I., Worlds in collision, Pocket Books, New York, 1950.
  19. Velikovsky, I., Earth in upheaval, Doubleday & Co., New York, 1955.
  20. Ginenthal, C., The extinction of the mammoth, Ivy Press Books, Forest Hills, NY, 1997.
  21. Velikovsky, Earth in upheaval, p. 13.
  22. Hibben, F.C., Evidence of early man in Alaska, American Antiquity 8:256, 1943.
  23. Sanderson, I.T., Riddle of the frozen giants, The Saturday Evening Post, p. 39, 82, 83, January 16, 1960.
  24. Hapgood, C.H., Earth's shifting crust – A key to some basic problems of earth science, Pantheon Books, New York, 1958.
  - Hapgood, C.H., The path of the pole, Chilton Book Co., New York, 1970.
  25. Hapgood, C.H., Earth's shifting crust – A key to some basic problems of earth science, Pantheon Books, New York, p. 234 - 235, 1958.
  26. Digby, B., The mammoth and mammoth-hunting in north-east Siberia, H.F. & G. Witherby, London, p. 151, 1926.
  27. Grayson, Explanations of Pleistocene extinctions, p. 5 - 39.
  28. Sanderson, Riddle of the Frozen Giants.
  29. Farrand, W.R., Frozen mammoths and modern geology, Science 133:729 - 735, 1961.
  30. Farrand, W.R., Frozen mammoths, Science 137:450 - 452, 1962.
  30. Farrand, W.R., Frozen mammoths, Science 137:450, 1962. 참조

## 좋은 소식



제임스 가족은 창조캠프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사벨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지질 탐사였으며, 웨슬리는 몇 명의 실제 박사 과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연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와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관하여 좋은 설교를 해 주었다. 사이몬은 가족이 자기들의 방으로 돌아갈 때 평상시보다 더 조용했다. “친구야, 무슨 일이야?”하고 아빠가 물었다.

사이몬이 물었다. “아빠, 나는 구원받았나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족 공부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그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오고오는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있는 아버지와 똑같이 태어날 것이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1:26-31

### 하나님이 아담을 불순종하도록 창조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매우 좋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하셨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셔야 했으므로 창조 세계를 저주하셨다. 아담은 더 이상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죽어야 했다.

\*더 깊게 파 보라: 창세기 2:15-17, 3:1-24, 4:1-14

###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심판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규칙을 순종하지 못한다.

\*더 깊게 파 보라: 에스겔 18:20; 로마서 5:12, 3:23

###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므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했지만, 그분은 의로우시므로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셔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전적으로 완전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셨으므로 다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갚아야 할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으셨다.

\*더 깊게 파 보라: 베드로전서 2:24; 베드로전서 3:18, 로마서 8:3, 히브리서 4:15, 고린도후서 5:21, 요한복음 3:16

###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그런가?

아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음을 보였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창조세계에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죽음

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역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깊게 파 보라: 누가복음 24:36-53, 고린도전서 15:35-57, 히브리서 10:12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오늘날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갚아졌다.

\*더 깊게 파 보라: 히브리서 11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그들이 치러야만 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끔찍한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른다.

\*더 깊게 파 보라: 요한복음 14:6, 사도행전 4:12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할 것이다!

\*더 깊게 파 보라: 요한일서 1:9, 로마서 10:9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신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침례를 받으라 하셨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격려를 받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해하겠니, 사이몬?”

사이몬은 진지하게 끄덕였다. “아빠, 나는 우리가 금방 나누었던 모든 것을 다 믿어요. 예수님이 그 것을 알 수 있게 당장 그분께 기도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 사이몬!”

\*더 깊게 파 보라: 로마서 6:23, 마태복음 28:19, 사도행전 2:41, 히브리서 10:25

그 뒤에 웨슬리와 이사벨이 사이몬을 안아주었다. “이제 너는 그냥 우리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다!”

“그것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더 깊게 파 보라: 요한복음 17:24 **창조**

출처: Creation ex nihilo Vol. 39(2017), No. 4, pp. 34-37



# 에스더 왕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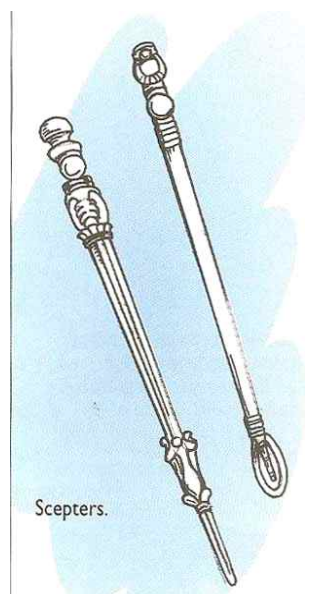
## (에스더서)

솔로몬 왕의 시대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약해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자 하나님은 나라가 점차적으로 멸망하도록 하셨다. 먼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다. 그리고는 나뉜 땅을 악한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BC 745년부터 587년까지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살게 했다. 앗시리아는 BC 612년까지 세계를 통치하는 대제국이였다. 그리고는 바빌로니아가 BC 539년까지 세계를 통치했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했다. 벽에 쓴 손글씨의 이야기(단 5)는 고레스의 군대가 전투 없이 그 도시를 점령하던 밤을 말하고 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9년 더 통치하고 BC 530년에 죽었으며, 메대의 다리우스가 처음 2년을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그 9년 동안에 그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 기초를 놓도록 허락했다.

고레스의 아들 Cambyses II(BC 530-522)의 통치 동안에 성전에 관한 역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BC 522년에 다리우스 1세(메대의 다리우스가 아니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 역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학개와 스가랴가 유대인들에게 사역했다. BC 515년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었다.

BC 486년에 다리우스 1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크세르세스(아하수어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 BC 465년까지 통치했다. 이 왕이 자기의 왕비 와스디에게 불만스러워서 그녀를 내쫓고 에스더와 결혼한 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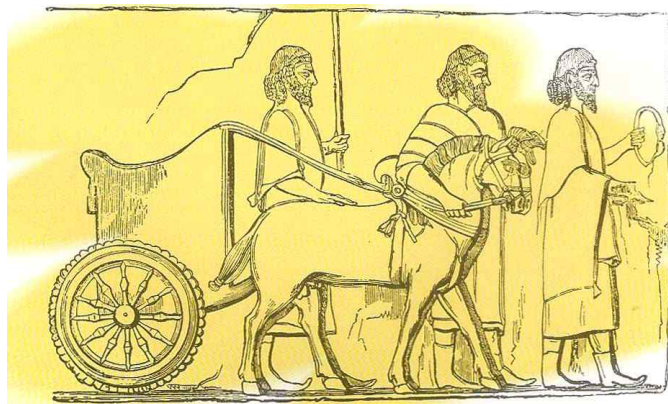
크세르세스는 전사 출신의 왕이었다. 이집트에서의 폭동을 진압한 후에 그는 그리스를 침공했다. 잠시 동안은 페르시아가 이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Scepters.

<홀>

살라미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자기들의 함대를 잃었다. 패배를 인식하자 크세르세스는 자기 군대를 한 장군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후에 크세르세스는 자기 경호원 중의 한 명에게 살해당했다.



<페르시아 전차. 아마도 에스더는 이와 유사한 전차를 탔을 것이다.>

## 에스더의 이름

에스더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로서 의미는 “도금양”(상록 관목)이고,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는 “별”을 의미한다. 그 이름은 이방 여신 “이쉬타르”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에스더의 반짝이는 미모를 나타내는 것 일 수도 있다.

## 크세르세스의 이름

그 왕 역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아하수에는 크세르세스의 히브리식 이름이며 그 왕의 역사적 이름이다. 실제로 크세르세스는 그의 이름의 그리스식 형태이다. 그 이름의 의미는 알 수 없다.

## 수산 궁

페르시아의 왕들의 수도는 하나 이상이였다. 수산 궁은 지금의 이란 남서쪽에 있는 수사에 있었다. 페르세폴리스는 또 다른 수도였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 두 도시를 왔다갔다 하며 살았을 것이다.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하렘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거기에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도 혹은 크세르세스도 포함된다. 겨울 궁전은 여기 페르세폴리스였으며, 여름 궁전은 수사에 있는 것이었다.>

## 하나님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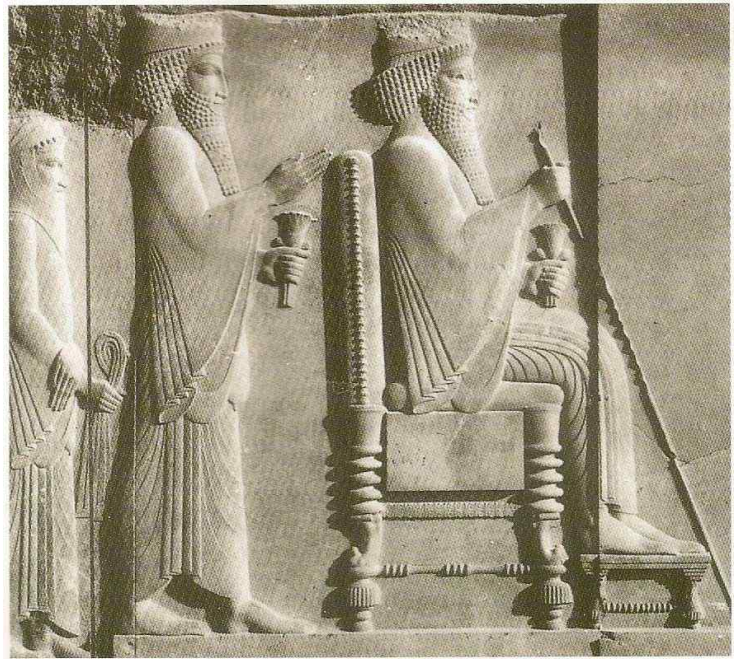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에스더서는 신약 성경에서 한번도 참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모르드개

에스더를 딸로 키운 그녀의 사촌은 아마도 왕의 궁전에서 낮은 직급의 관리였을 것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둘 다 유배를 와서 페르시아에서 살았을 것이다.

## 시기

에스더는 BC 486-465년에 통치했던 크세르세스 시대 동안에 살았다. [참조](#)



<돌에 부조된 이 그림에서 아하수어로 왕은 옥좌에 앉아 있는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의 뒤에 서 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수도 중의 하나인 파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두 왕의 실제 형상이다.>

## 진화적 창조론(유신진화론)에 대한 단상

우주와 사람은 진화된 존재일까요? 성경에는 우주와 사람이 진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오늘날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어 진화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동식물과 사람은 39억 년 전에 우연히 발생한 단 하나의 생물로부터 진화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 어느 쪽이 우주와 사람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진화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창세기에 기록된 우주와 사람의 기원론은 가짜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원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적 기원론만을 배웁니다. 생물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침팬지,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 박테리아와 공통조상을 가진 하나의 생물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것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찾은 진화의 목적이자 방향은 물질의 ‘생존력’이고 다윈은 사람을 생존력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면서 ‘진화’된 존재로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이 과정은 전적으로 스스로, 우연히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하나님의 영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윈이 주장한 우리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이것이 진화입니다.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 한 쪽이 진실이라면 한 쪽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단 한 명, 우리는 모두 단 하나의 모태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에 이견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검증 결과 진짜 나를 낳은 어머니가 밝혀진다면 나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다른 한 사람은 가짜가 되고 맙니다. 기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는 충돌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충돌하는 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학우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의 충돌이 성경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의 충돌에 과학적으로 창조론이 사실임을 지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제가 활동하는 ‘한국창조과학회’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수백 명의 기독교 과학자들과 관심자들이 모여 과학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창조과학회의 활동이 교회 안에서 종종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이론 때문입니다. 그 이론이 바로 ‘진화론적 유신론’입니다.

진화론적 유신론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적 유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무신론적 진화론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신론’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만, 저는 진화론적 유신론을 ‘유신 진화론’으로 표현합니다. 이하 진화론적 유신론은 유신 진화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빅뱅의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진화의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며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신 진화론은 놀라울 정도로 이미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신 진화론은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진화론과 창세기 내용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으로 눈을 돌리면 그들의 생각, 유신 진화라는 생각을 지지해 줄 신학적 이론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또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는 다양한 ‘신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유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 사조는 18세기에 유행한 계몽주의라는 시대사조와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사조에 편승하여 오늘날 더욱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의 지원을 받은 유신 진화론자들은 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창세기의 앞부분은 비유로 해석해야 합니다.
2.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과학(빅뱅이론, 생물 진화론)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당시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3. 창세기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창조적으로 반박한 문서입니다.



#### 4.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기원론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기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성경에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을 제시한 후, 그것이 과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서학적으로 오류라는 것을 증거하고, 유신 진화론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오류라고 제시한 부분들이 오류가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글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나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에게 창세기의 앞부분은 역사가 아니라 신앙소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신앙소설이고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자연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인 진화론인 유신 진화론이 기원에 대한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신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유신 진화론을 활발히 전달하고 ‘과신대(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유신 진화론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애쓰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체물리학을 전공하고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활발하게 유신 진화론을 전파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우종학 교수의 동향을 살펴왔는데, 그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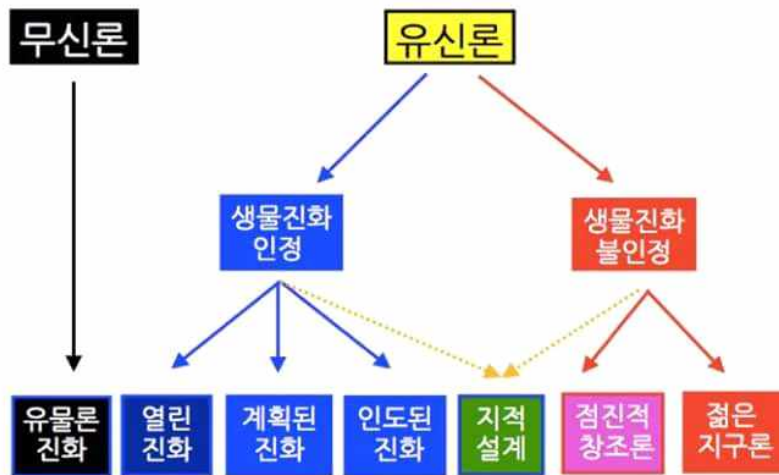
저는 우종학 교수가 쓴 책을 읽었고, 그가 여러 매체에 쓴 유신 진화론에 관한 글들을 읽었으며, 그의 페이스 북을 팔로우하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강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유신론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의 요청을 받자마자 주저함 없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가 페이스 북에 공개한 내용을 통해 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생각을 정리하면

1.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으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2. 성경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자연은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3. 전통적인 해석 방법,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해석은 틀렸고
4.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며
5.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무신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who)는 진리지만  
창조의 그림(how)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은 진리이지만, 창조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물론적 진화는 부정한다고 합니다. 생물진화는 인정하지만, 유물론적 진화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진화론적 유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적 이해

■ 성경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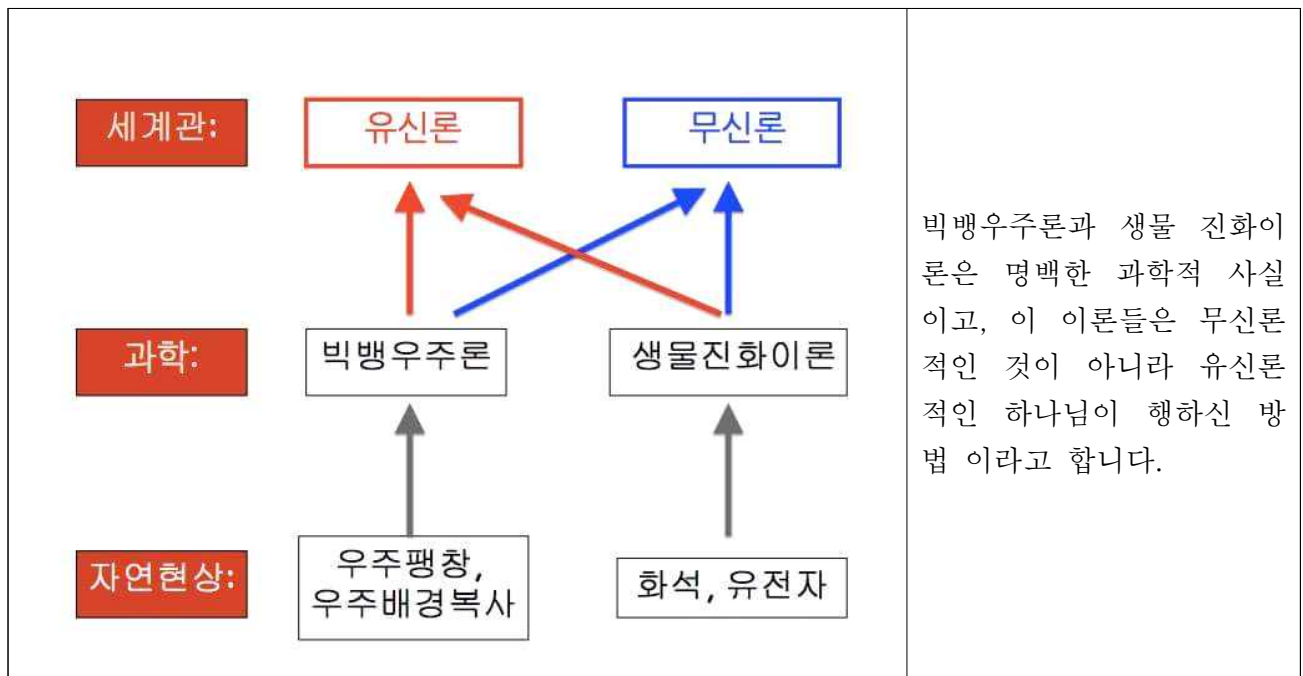
창조주에 대한 신학적 서술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  
비과학적 (초과학적) 서술 → 창조주 (who)

■ 자연 (과학)

창조역사에 대한 인과적 서술  
시간, 순서, 방법  
비신학적 서술 → 창조계 (how)

성경은 ‘누가(who)’ 천지를 창조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과학은 ‘어떻게(how)’ 창조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방법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div data-bbox="225 311 399 380" data-label="Text"><b>저자</b></div> <div data-bbox="277 427 339 465" data-label="Text">계시</div> <div data-bbox="225 524 399 593" data-label="Text"><b>두가지 책</b></div> <div data-bbox="284 647 346 687" data-label="Text">성령</div> <div data-bbox="225 739 399 808" data-label="Text"><b>책읽기</b></div>	<div data-bbox="467 311 1023 824" data-label="Diagram"> <pre> graph TD     A[창조주] --&gt; B[성경 (특별계시)]     A --&gt; C[자연 (일반계시)]     B --&gt; D[성경해석 (신앙, 신학)]     C --&gt; E[과학 (자연에 대한 해석)] </pre> </div>	<p>이 부분은 우종학 교수의 핵심 레파토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입니다.</p>
<div data-bbox="277 943 963 987" data-label="Section-Header"> <h3>과학과 신학 – 창조를 이해하는 종합적 접근</h3> </div> <div data-bbox="188 1068 638 136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학은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li> <li>• 나의 성경해석과 성경은 다르다.</li> <li>• 신학은 창조주, 과학은 창조세계</li> <li>• 신학과 과학은 창조주와 창조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두 축</li> <li>• 독립된 그러나 상보적인 노력</li> </ul> </div>	<div data-bbox="655 1068 1046 1429" data-label="Diagram"> <pre> graph TD     A[창조주] --&gt; B[성경 (특별계시)]     A --&gt; C[자연 (일반계시)]     B --&gt; D[성경해석 (신앙, 신학)]     C --&gt; E[과학 (자연에 대한 해석)] </pre> </div>	<p>신학은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교회는 성서를 잘못 해석해 왔다고 합니다.</p>



과연 유신 진화론자들의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1. 진화론은 하나의 자연주의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2. 빅뱅과 생물 진화는 관찰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연주의적 해석입니다.
3. 모든 과학자들이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4. 과학적 사실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원과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과적 추론입니다.
5. 과학적 사실은 변합니다.

저와 같이 성경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신 진화론자들에 의해 성경을 맹신하여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의 기록 보다는 과학적 사실을 진리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한국창조과학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중력법칙, 열역학법칙, 유전법칙 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부정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일까요? 과학은 크게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으로 간주되는 실험과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기원과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과학은 어떤 사실을 증거 하는 과학입니다. 대표적인 기원과학에는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이 있습니다. 기원과학이 하는 일은 발생한 현상의 인과적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증명을 필요로 하는 실험과학이 아니라, 인과적 원인을 밝히는 기원과학에 속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실의 인과적 원인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결과에 대한 원인이 타당하면 됩니다. 그 타당성은 무신론적 자연주의 바탕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원인은 과학적 탐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역사적 사건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라는 범위에 의해서 탐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주의라는 범위를 주장하는 무신론적이고 반성경적인 기원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1. 진화론은 하나의 자연주의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주 진화론의 한 형태인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이 마치 역사적 사건인양 소개되고 있지만, 두 이론은 하나의 자연주의적 ‘이론’, 법칙이 아닌 ‘이론’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자연주의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관찰 가능한 것만이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신’의 존재나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천지창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종교로 분류됩니다. 반면, 계산이 가능한 빅뱅이론이나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진화론은 과학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과학적 기원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 2. 빅뱅과 생물 진화는 관찰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연주의적 해석입니다.

빅뱅이론은 우주의 팽창을 거꾸로 계산해 본 하나의 자연주의적 아이디어, 해석에 불과합니다. 물론 빅뱅이론을 지지하는 우주배경복사 등의 증거들이 있지만, 이 증거들이 빅뱅이론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배경복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생물 진화론은 생물의 변화를 이용한 확장한 아이디어,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침팬지, 다양한 사람은 관찰했지만,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것은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진화를 증명한다는 수많은 논문들은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이나 생물의 유사성을 실은 논문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비슷하다고 해서 진화된 것은 아닙니다. 렌스키의 실험에서 관찰된 진화되었다는 박테리아는 결국 변화된 박테리아일 뿐이고, 밀러의 돌연변이 초파리들은 다양한 초파리일 뿐, 박테리아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거나 초파리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엇이 된 사례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책이나 논문에서 진화의 증거로 소개되는 것들은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이나 비슷한 생물들을 나열한 것일 뿐입니다.



니다. 아무도 생물이 다른 종류(kind)로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한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의 기원론이 자연계와 모순이 될까요? 빅뱅이론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빅뱅의 재료가 되었던 최초의 물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빅뱅을 일으킨 엄청난 폭발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주 배경복사는 우주 전체에 걸쳐서 매우 균일합니다. 어떻게 이 넓은 우주에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균일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빅뱅 초기에 우주의 평균밀도가 10의 62승 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평균밀도가 우연히 맞추어진 것일까요?

우주에는 빅뱅이론이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주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조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설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26)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들을 종류(kind)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특성과 생김새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물과 동물 창조는 오늘날 관찰되는 자연계의 모습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했을 당시 19세기에 신학자들은 생물은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성경을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고,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을 소개하면서 진화론이 유행함과 동시에 성경이 틀렸다는 생각이 함께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천동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듯이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물의 불변성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동설과 생물의 불변성은 당시의 철학을 수용한 신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론은 이 신학자들의 오해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생물이 변한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성경도 생물이 변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창세기 대홍수 사건과 레위기를 보면, 분명 생물은 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생물의 불변성은 당시 일부 신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화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과 진화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kind, 히브리어로 ‘민’)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라는 단어는 현대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종(species)과는 다른 단위입니다. 성경은 생물의 변화가 종류 안에서만 이루어

어 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령, ‘개’라는 종을 하나의 종류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쌍의 개를 창조하시면, 오늘날 약 300여 품종에 달하는 다양한 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쌍의 개로부터 변화된 생물입니다. 종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과’ 동물을 하나의 종류로 보면 개과 동물에 속한 비슷한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몇 쌍의 개과 동물, 후대에는 홍수 때 방주에 탑승했다가 다시 나온 몇 쌍의 개과 동물들로부터 변화된 후손들이 됩니다. 그러나 개과 동물들은 절대 고양이과 동물이 될 수 없고, 서로 짝짓기도 불가능합니다. ‘개과’라는 분류단위 안에서의 변화는 관찰됩니다. 그러나 그 개과 동물이 전혀 다른 무엇이 된 것은 과학적으로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이 해석이 진화론과 모순이 되나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자연계와 모순이 되게 만든 것은 다윈 당시의 신학이었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논문들은 대부분 생물의 변화하는 현상과 생물의 형태적 유사성이나 기능적 유사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은 관찰된 사실입니다. 저와 창조과학을 하는 과학자들도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은 생물의 변화가 진화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진화가 아닙니다. 다윈이 주장한 진화는 변화를 통한 생물의 유래를 말합니다. 즉 이 변화를 통해서 최초의 단 하나의 생물로부터 모든 식물과 동물, 사람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큰 변화인 진화는 관찰된 사실일까요? 진화는 관찰된 사실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현상을 두고, 그저 생물의 변화일 뿐이라는 성경적 창조론자와 변화를 오랜 시간동안 거듭하다 보면 진화될 것이라고 믿는 진화론자들 간의 ‘해석, 믿음의 싸움’일 뿐입니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자신의 이론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은 단 하나의 생물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화석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캄브리아기라는 지층에서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현대 과학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오히려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다양한 생물이 한꺼번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마다 DNA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각 세포마다 약 30억 쌍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암호화 되어 있고, 각 정보들이 세 개씩 짝을 이루어 20가지의 아미노산 중 하나를 합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들에 의해 합성된 아미노산들은 역시 DNA 정보들에 의해 수백 개가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이 됩니다. 이 단백질 덕분에 작은 세균도,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고래도, 그리고 사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마치 수첩에 글을 쓰듯, 암호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세포가 무엇인지, DNA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다윈이 이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신중했던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는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존재합니다. 정보는 스스로 구성한 것일까요? 만들어진 것일까요? 정보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연이 정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보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창조하심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3. 모든 과학자들이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이론과 생물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빅뱅이론과 진화론을 인정할까요? 권위 있는 과학자들 중에도 두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창조과학회에 계신 물리학, 생물학 전공자들은 하나같이 두 이론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관련 이론을 찾아본다면, 마치 사실인 것으로 소개되었던 두 이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 과학적 사실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특히, 기원과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과적 추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적 사실은 반드시 진실일까요?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질문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과학적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오늘날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의 세계라든지 영혼의 문제 등은 자연주의가 가진 한계를 드러나게 합니다. 관찰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은 모든 현상을 자연주의라는 범위 안에 구겨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을 유발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은 그 부작용을 미스터리라는 용어로 처리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은 자연주의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은 비과학적 현상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과학적인 현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담이라는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신’이라는 존재를 제외시키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담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가 원인이 되었고, 원숭이라는 결과는 포유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과학적 사실은 진실인 것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 **5. 과학적 사실은 변합니다.**

오늘, 진실로 취급되었던 과학적 사실이 또 다른 발견으로 거짓이 되어버리는 일은 과학계에서 허다

합니다. 굳건하던 천동설도 지동설로 바뀌었고, 몇 백 년 동안 굳립하던 뉴턴의 정상우주론도 팽창 우주론이 등장하면서 수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로 세련되어 지는 것은 과학의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하는 과학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할까요?

과학 지식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내용이 충돌할 때, 과학적 사실 때문에 성경을 고쳐야 할까요? 과학적 사실 때문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오류가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고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고쳐서는 안 됩니다. 확신하건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성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를 개괄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신 진화론이 오늘날 왜 유행할까요? 그 이유는 유신 진화론이 오늘날의 시대사조와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 봅니다.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일컫는 시대사조에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또 벗어남이 존중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기독교는 편협한 권위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는 태도가 근본주의라는 편협하고 권위적이며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태도로 취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유신 진화론이라는 유혹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종학 교수는 유신 진화론이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담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통칭이라는 신학자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창세기를 보는 관점은 유신 진화론적 관점과 같습니다. 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과학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명확해졌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가진 이성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성에 의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 판단의 최종 기준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것만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 원죄가 무엇인가요?
2. 영혼은 존재하나요?
3. 아담은 사람인가요?
4.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5.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셨나요?
6. 사도들도 창세기를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7. 창세기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가요?
8.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창세기 대홍수 사건은 전지구적인 사건일까요?
9. 예수님이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셨나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이 질문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에게는 무척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해석이 틀렸다는 생각 아래 모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통일된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도 교회에 다니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의 신앙이나 유신 진화론자들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다니시고, 같은 말씀을 보시며, 기도생활을 하시는 신실한 분들이실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과 연결될 때, 구원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반을 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할수록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멀어지게 하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반성경적인 이론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창조](#)



# 2017 창조탐사여행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볼까~!

해설의 종류는 어떻게 생기지?

고수동굴 및 단양

언제? 2017. 11. 11 시간 ?  
어디서? 동부교회 앞 집합

회비 : 3만원  
(초등2만 미취학 1만)  
아침&간식 점심제공

회비는 아래 계좌로~~~  
대구은행 508-11-702787-7  
창조과학회 (이종헌)

신청방법

010-2051-0922, jimg(카톡아이디)

대표자이름 휴대폰번호 관계:이름(학년) 소속교회

예) 김바울 010-2000-9999 딸:김예담(초3) 총2 천당교회

2016년 마이산 탐사여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 2017년도 구미 창조과학 기본과정

-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복음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창조과학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 **모집대상:**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  
(자격제한 없음)
- **주요 프로그램:**
  - 창조와 진화
  - 노아의 홍수와 방주
  - 창조과학 주요 강연 수강
  - 최신 창조과학 핫이슈 토의 등
- **교육기간:** 2017. 09. 04 ~ 10. 23 (6주 과정)  
(6주, 매주 월요일 저녁 6시30분~10시)
- **등록비:** 7만원  
(대구은행: 508-11-702787-7 창조과학회(대구))
- **장소:** 구미강동교회(최광락목사)  
경북 구미시 인동2길 12
- **참가신청/문의:** 010-2051-0922  
(지명구 간사, 카톡아이디 jimg)
- **특기사항:**
  - 심화과정 수강자격 부여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명의 수료증 수여  
(5주 이상 참석 및 필독서 감상문과 간증문 제출 하신 분)
- **주최:**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삼달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 창조과학 기본과정

- 일시: 2017. 09. 04 ~ 10. 23 (6주)  
매주 월요일 저녁 6시30분~10시
- 장소: 구미강동교회

## Program

	1주 (9월 04일)	2주 (9월 11일)	3주 (9월 18일)	4주 (9월 25일)	5주 (10월 16일)	6주 (10월 23일)
18:30 -19:00	등록 접수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19:00 -20:00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기본과정 소개)  <단체사진 촬영>	강의2: 자연의 신비 (신동수 교수)	강의4: 빙하기와 격변 (강기태 강사)	강의6: 진화 심리학 (정재훈 강사)	강의8: 지층과 화석 (갈은주 강사)	강의10: 교과서 속 진 화론 바로알기 (강기태 강사)  <토의> 창조과학 Q&A
20:00 -21:00	강의1: 진화론의 영향 (이종현 교수(대 구지부 지부장))	강의3: 진화론의 아이콘? (전창진 교수)	강의5: 노아의 홍수와 방주 (박혜정 박사)	강의7: 우주와 지구의 창조 (권진혁 교수)	강의9: 성경 속 공룡 (지명구 강사)	수료예배 & 수료식
21:00 -22:00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상단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 창조과학 기본과정

- 일시: 2017. 08. 30 ~ 11. 22 (10주)  
매주 수요일 낮 12시25분~13시35분
- 장소: 영남신학대학교 강의실

## Program

	1주 (08/30)	2주 (09/06)	3주 (09/13)	4주 (09/20)	5주 (09/27)
12:25-13:35	오리엔테이션 (기본과정 소개) <단체사진촬영>  강의1: 인류의 기원 (김영호 박사)	강의2: 진화의 아이콘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장)	강의3: 자연의 신비 (신동수 교수)	강의4: 지층과 화석 (갈은주 강사)	강의5: 진화심리학 (정재훈 강사)
	6주 (10/25)	7주 (11/01)	8주 (11/08)	9주 (11/15)	10주 (11/22)
12:25-13:35	강의6: 노아의 홍수와 방주 (박혜정 박사)	강의7: 빙하기와 격변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장)	강의8: 우주와 지구의 창조I (권진혁 교수)	강의9: 우주와 지구의 창조II (권진혁 교수)	강의10: 진화론의 영향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장)  수료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 지 부 기 도 제 목

1. 지부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앞서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소서.
2. 차세대의 젊은 창조과학자들을 세워주셔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3. 2018년 전국학술대회 준비가 잘 되도록 - 2018 대구에서 개최될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대구·경북지역 기독교계가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소서. 학술대회가 개최될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경산중앙교회). 신학대학들이 연계하게 하시고, 훌륭한 과학적, 신학적, 세계관적 연구 성과가 나타나 학술대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술대회가 되게 하소서.
4. 창조Study 모임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5. 구미지역 기본과정이 9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자라가도록
6. 영남신학대학의 기본과정이 8월 30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잘 배워서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7. 지속적인 군부대 및 학교사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게 하소서.
8. 후원교회들(대평교회, 동로교회, 동성교회, 삼일교회, 시와찬미교회, 아멘교회, 여남교회, 영안교회)이 말씀에 바로 선 영적 성장을 하며, 더 많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가 생기게 하소서.
9.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부 회원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소서.



## <9월 강연>

강사	날짜	대상	제목
이종헌	2017-09-03	구미강동교회 오후예배	보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종헌	2017-09-04	구미 기본과정	진화론의 영향
이종헌	2017-09-06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진화의 아이콘
김영호	2017-09-10	경산중앙교회 전문인선교회원	창조과학 자주하는 질문
권진혁	2017-09-10	점촌신흥교회	우주창조
박호완	2017-09-11	백석신학대	창세기 홍수전기
신동수	2017-09-11	구미 기본과정	자연의 신비
전창진	2017-09-11	구미 기본과정	진화론의 아이콘
신동수	2017-09-13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자연의 신비
권진혁	2017-09-13	영대의대 CMF	
김영호	2017-09-16	운암교회 주일학교	노아홍수와 방주
강기태	2017-09-18	구미 기본과정	빙하기와 격변
박혜정	2017-09-18	구미 기본과정	노아의 홍수와 방주
박호완	2017-09-18	백석신학대	창세기홍수후기
전창진	2017-09-18	경북대 CMF	Biological Icons of Evolution: Fact or Raith
갈은주	2017-09-20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지층과 화석
박호완	2017-09-24	영광교회 성도	진화와 창조
이종헌	2017-09-24	아멘교회 고등부	빅뱅-가설인가 사실인가?
정재훈	2017-09-25	구미 기본과정	진화심리학
갈은주	2017-09-25	구미 기본과정	지층과 화석
박호완	2017-09-25	백석신학대	창세기대홍수3
정재훈	2017-09-27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진화심리학

## <강연 예정>

강사	날짜	대상	제목
이종현	2017-10-08	점촌신흥교회	진화론 및 유신진화론의 영향
권진혁	2017-10-16	구미 기본과정	우주와 지구의 창조
강기태	2017-10-16	구미 기본과정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 알기
이종현	2017-10-16	백석신학대	진화론의 영향
이종현	2017-10-17	구미상모교회 여성리더	노아의 홍수
지명구	2017-10-23	구미 기본과정	성경 속 공룡
전창진	2017-10-23	백석신학대	생물창조1
권진혁	2017-10-24	구미상모교회 여성리더	우주와 연대
박혜정	2017-10-25	영남신학교기본과정	노아 홍수와 방주
전창진	2017-10-30	백석신학대	생물창조2
이종현	2017-11-01	영남신학교기본과정	빙하기와 격변
전창진	2017-11-06	백석신학대	생물창조3
신동수	2017-11-07	구미상모교회 여성리더	생명 그 완벽한 디자인
권진혁	2017-11-08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우주와 지구창조1
권진혁	2017-11-13	백석신학대	우주와 지구창조1
전창진	2017-11-14	구미상모교회 여성리더	진화의 아이콘
권진혁	2017-11-15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우주와 지구창조2
권진혁	2017-11-20	백석신학대	우주와 지구창조2
강기태	2017-11-21	구미상모교회 여성리더	빙하기와 격변
이종현	2017-11-22	영남신학교기본과정	진화론의 영향
권진혁	2017-11-27	백석신학대	우주와 지구창조3

# 지 부 소 식

## 2017년 8월 30일~11월 22일(10주)

창조과학 기본과정 매주 수요일 낮12시25분 ~ 1시35분 (장소: 영남 신학대학교 강의실)

## 2017년 9월 4일~10월 23일(6주)

창조과학 기본과정 (구미) 매주 월요일 저녁6시30분 ~ 10시 (장소: 구미 강동교회)

## 2017년 10월 19일(목)

10월 정기모임

## 2017년 11월 11일(토)

2017년 창조탐사여행

### \*\* 편집인의 변 \*\*

긴 연휴동안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월호에는 많은 내용들을 알차게 실었습니다. 이번에 편집하면서 새롭게 표편집 나누기와, 문단모양 배경색없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잘 읽어 보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환절기 건강하세요^^ - 현옥 -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mailto: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